



노동부,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노동부는 지반 및 토사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아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2월 20일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진정, 고소·고발 등 신고가 접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붕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추락 등 재해예방 조치, ▲건설용 기계·기구 등의 안전조치, ▲안전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을 집중 점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0일부터 노동부 각 지청에서는 일제히 해빙기를 대비한 취약 건설현장 집중 점검을 하였는데,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을 비롯해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서부지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예방활동이 펼쳐졌다.

안양지청 50인미만 사업장 재해예방에 행정력 집중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에서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06년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전체 재해 1,535명 중 70%를 차지하고 있고, 재해 형태별로는 협착재해가 282명으로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05년도에도 같은 형태를 나타냈다.

2명 이상 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협착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동일사업장에서 2년 연속해서 발생되지는 않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이런 분석결과를 활용해 재래형 재해인 협착 재해는 반드시 없앤다는 강력한 의지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 5개 위험업종(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측정기기제조업, 골판지상자제조업)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 책임하에 사전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재해감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키로 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시 주의, 경고 등 단계적 조치와 사업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예방 분위기확산을 위하여 노·사·정 산재예방결의대회, 산재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하는 한편, 작업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클린사업 등 지원사업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4천만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지난 3월 21일부터 발주하는 4천만원 미만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과 안전화 건조기 및 도로 내 맨홀 주변의 근로자 보호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철·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확산(위험성평가기법 통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관내(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300인 이상(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기법 확산을 통해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 각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은 기존의 노사당사자의 책임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법률적 규제와 전문가에 의존해 온 기존 재해예방체제로는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제도를 통해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작성시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부지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감독을 면제 및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부포상 우선추천 및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반월시화공단내 근로자 건강지킴이 “산업보건센터” 오픈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전용 보건소가

설치되었다.

노동부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3월 7일 반월시화공단내에 「지역산업보건센터」를 개소하였다.

보건센터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상주하면서 근로자 건강상담 및 간이검진, 정밀체력측정, 운동처방 등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과 안전보건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한다.

보건센터는 개별근로자 및 사업장으로부터 On-Off line를 통한 신청을 받아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가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소외되었던 지역단위 중소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 전국 주요 산업단지 6개 지역에 추가로 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산업보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청, 산업재해예방 서한문 발송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鍾善)은 산재취약시기인 해빙기의 위험예방과 노·사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사업장 351개소에 지청장 명의의 산업재해예방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서한문은 산업재해 취약업종인 건설현장, ’06년도 산재다발 사업장, 위험기계기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금속제품 제조업 등 351개소에 대해 발송하였다.

주위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산업재해는 몇 몇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주의만으로

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로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협력하여 조그마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으므로 올해는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증진되고 재해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강남지청,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현지 확인지도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은 관내(서초구, 강남구)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SOC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 확인지도점검을 하였다.

현장 확인은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서초프로젝트C현장 등 10개 대형건설현장(SOC 포함)에서 제출한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내용의 현장 여건과의 부합 여부, 공정별 근로자 대표의 참여와 의견 개진 및 반영 여부, 이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였다.

이번 현장 확인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행이 모두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하반기 현지 확인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정부포상 등에 우선하여 추천할 것이다. 현장 확인 중 발견되는 법 위반사항은 현지도 위주로 시정조치 하였으나, 프로그램을 근로자 참여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현장 여건상 이행 불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였거나 현장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진단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서울서부지청, 중소기업 건설현장 안전관계자 교육 강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20억 미만 중소기업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청 관내 2006.10월말 현재 재해율(0.44%)은 전년동기(0.40%) 보다 높은 실정으로 이중 건설업의 비율은 전체 재해건수(1,216건)의 21.5%(283명)이고, 특히 20억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건수(209명)는 전체 건설업 재해건수(283명)의 73.9%(209명)를 차지하고 있는 바, 2007년도를 중소기업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한 원년의 해로 만들고 재해율도 낮은 서울서부지역 구현을 위하여 안전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가능한 동일 공정별【골조(형틀·철근), 미장·방수, 전기·설비】맞춤식 교육으로 건설업 재해 예방대책,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산소결핍재해예방 등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내용을 사례별로 내실 있게 운영한다.

이보간 지청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건설현장 안전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관악지청,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를 안전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이상진)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지반붕괴,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말부터 11월말까지 소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개인주택 및 근생신축공사 등 안전관리 취약 현장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안전

관리가 취약한 180여개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해당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지반붕괴,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반적인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관악지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 실시

서울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이상진) 관할 지역에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을 3월부터 실시했다.

서울관악지청은 구로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전자, 기계관련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고 부품 등을 세척, 조립하는 과정에서 톨루엔, TCE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어 유기용제를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였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점검은 상대적으로 작업현장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시 근로자가 TCE, 노말hexan에 중독되어 사회적인 이슈화되었던 재해사례와 1월 1일 개정된 화학물질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찾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시대 기능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성공한 기능인을 발굴·선정하여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어가는데 국민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나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기업체 임직원, 전문기술·기능 관련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기능인을 뽑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매월 1회 시상하는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출신학교장, 관련협회 및 단체장, 소속기관(업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에서 선정하게 된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접수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제출서류

- ① 추천서 양식
 - ② 졸업증명서(실업고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 ③ 공적내용서(증빙서류 첨부)
 - ④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각 1부
- ※ 상기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전문기능인력 Pool 시스템」홈페이지(<http://pool.hrdkorea.or.kr>)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선정 심사기준

- ① 근무경력
- ② 국가기술자격·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 ③ 업무와 관련된 특허·ISO 획득 또는 생산성·품질향상·공정개선 실적
- ④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외 교육실적 등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

■수상자에 대한 혜택 및 활용

- ① 언론매체 홍보, 동영상물 제작·배포, 책자 발간
- ② 정부표창 및 기념패(은 150돈 상당)수여 등 